

전주-완주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 개편

새해 첫날부터 봉동·용진 방면 노선 시행... 순환노선 신설·KTX 이용객 위한 심야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

2026년 새해부터 전주시와 완주군 봉동·용진 방면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시간선제로 바뀐다. 특히 삼천·효자·서신동 주요 아파트단지과 학교, 정주역을 모두 지나는 순환노선이 신설되고, KTX 이용객을 위한 심야버스도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전주-완주 시내버스 시간선제' '봉동·용진 방면 노선 개편을 새해 첫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노선 개편은 시가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전주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 시행 협약'의 마무리 단계로, 장거리·중복도 등 비효율적 노선 구조를 해결해 배차간격 단축과 정시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선제 노선 개편 사항을 구체적



전주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전주-완주 시내버스 시간선제' '봉동·용진 방면 노선 개편을 새해 첫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으로 살펴보면, 전주시 기종점에서 봉동·용진 방면 각 마을로 향하던 전주 시내버스 21개 노선이 6개로 통합돼 봉동·용진 읍면 소재지와 코아투스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완주군 개별 마을과 봉동·용진 주요 생활권까지의 이동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8대가 증차 운영돼 접근성을 제공하게 된다.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500번과

501번 노선이 신설돼 노선 개편으로 폐지되는 용진 방면의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을 대체해 평화동종점에서 봉동화차까지 운행된다. 또 폐지되는 기존 △508번 △536번 △542번 △545번 △546번 노선을 대체할 550번이 신설돼 평화동종점에서 코아투스까지 균일한 배차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시간선제 노선 통합으

로 확보된 운행 대수를 활용해 삼천·효자·서신동과 전북대학교 방면에서 전주역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순환 2번 노선을 신설한다. 순환노선 2번은 평화동종점에서 출발해 △평화그린2차A △삼남중 △근영여고 △한일고 △전북대정문을 지나 전주역을 순환해 다시 평화동종점으로 향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노선 개편을 통해 KTX 막차 이용객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심야버스도 확대 운영기로 했다. 확대되는 심야버스 노선은 순환 2번과 9-1번으로 각각 평화동종점에서 오후 10시 50분과 송천동종점에서 오후 11시에 출발해 전주역을 경유하여 운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도시 외곽 지역의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이미 대체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마을버스와 모신타็กซี่도 △낙수정 △장재마을 △전담리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환경 개선 나선다

우범기 시장, 현장 행정 추진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기린대로 버스중앙차로제(BRT) 사업에 의해 발생한 나무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에 식재하는 민원현장을 찾아 차질 없는 환경개선 사업을 주문했다. 이날 우 시장은 나무 식재가 진행될 예정부지를 확인하고 수목의 식재 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등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또 식재가 완료되면 주변 주민들의 오랜 민원인 악취 저감과 소음 차단 등 환경개선 효과를 직접 청취했다. 이와 관련 기린대로 버스중앙차로제(BRT)는 호남제일문에서 한백교교차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기린대로 버스중앙차로제(BRT) 사업에 의해 발생한 나무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에 식재하는 민원현장을 찾아 차질 없는 환경개선 사업을 주문했다.

로까지 9.5km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내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여의광장사거리~추천대교 △추천대교~기린로전자상가 △기린로전자상가

~오목대의 3개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위치한 가로수 약 340주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외부에

옮겨 식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중순까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의 경계부와 도로변, 완충녹지대를 중심으로 악취 저감에 유용한 은행나무와 활엽수를 식재한다. 이는 악취 저감과 녹지 경관 개선뿐 아니라 예산 절감과 자원 선순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시는 리싸이클링타운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 사업도 병행기로 했다. 시는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리싸이클링타운 인근의 △악취 확산 저감 △대기질 개선 △근로환경 향상 등 다각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시설 주변 주민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근로자와 주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 개선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전주승마장' 한국마사회 말 복지 인증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승마를 통해 시민과 교감하는 말의 복지를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는 것을 공식

적으로 인정받았다. 공단은 전주승마장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말 복지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

혔다. 말 복지 인증제는 말 복지 향상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올해부터 새로 운영하는 제도다. 승마장 시설, 인력, 운영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현장평가 등 종합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주승마장을 비롯한 전국 5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3년간이다. /권희성 기자

고령 장애인 학습자, 교육 열망 결실

장애인야학교 참여 88세 최은섭 씨, 중졸 검정고시 합격

전주시는 올해 8월 치러진 검정고시에서 사단법인 다은복지센터의 장애인야학교에 참여한 학습자인 최은섭 씨(88, 1937년생)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씨는 학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교육에 대한 오랜 열망으로 올해 3월 다은복지센터 야학교에서 학습을 시작했다. 해당 기관은 기초 학습부터 문제 풀이까지 개인의 속도에 맞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며 꾸준히 지원하고, 최 씨는 이러한 도움 속에 학습을 이어가며 단계적으로 실력을 쌓아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 장애인야학교 지원사업은 학령기를 놓친 성인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 취득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합격은 고령의 장애인 학습자가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과 꾸준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학력을 취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장애인야학교의 교육적·공공적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로 꼽힌다. /권희성 기자

제10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공개 모집

전주시가 청년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제10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단체로, 전주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직장인, 소상공인 등 18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다. 제10기 모집 인원은 40명이다. 선발된 청년희망단원들은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약 1년 동안 청년의 시선으로 지역의 다



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전주시 대표 청년정책 참여기구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단원들에게는 분과회의 등 회의 참석에 대한 소정의 활동 수당이 지급되며, 분과별 정책 아이디어 발표 시상과 우수 활동자 시장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한다

전주시가 중국인 무비자 확대 등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국제관광 회복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치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주재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인 무비자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조치와 무비자 입국 확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전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서와 전주문화재단, 전주관광재단, 전주시정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장을 단장으로 출원기관과 관계부서, 관련업체로 이루어진 '전주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총괄 TF'를 구성하고, 매주 1회 정기 점검 회의를 통해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의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